

# 미국 한인사회의 변화와 한인청소년의 생활과 문제

## —로스 엔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원 영 준\*

- I. 서 론
- II. 한인 이민사/현황
- III. 4.29 LA폭동: 참혹한 상처, 뼈아픈 교훈
- IV. 한인청소년
- V. LA지역 한인청소년사업
- VI. 한인 유학생
- VII. 결 론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LA지역의 한인 사회를 살펴보면서 한인 이민 사회의 변화와 그 사회 속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II. 한인 이민사/현황

### 1. 이민사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1903년 일단의 한국인들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농장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시작된다. 1924년 미국이 이민법을 바꿔 더 이상의 동양인을 받아 들이지 않을때까지 약 9,000명의 노동자,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온 망명자들이 미국으로 와 첫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 1950년에서 1964년까지 14,000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 왔는데 그들은 주로 6.25동란시 참전했던 미국의 한국인 부인들 이거나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온 전쟁 고아들이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후 이후로

## I. 서 론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한인들은 100년이 채 안되는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간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여러 민족이 모여사는 미국에서 독특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인 사회는 여러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 4.29 LA폭동을 통하여 한인 사회의 성장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한인 사회, 특히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

\* 미국 로스 엔젤레스 한인청소년지역사회센터(KYCC) 특별사업부장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거의 30만명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1970년 인구 조사 결과와 1980년 인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10년새 41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Eui-Young Yu외, 1982).

## 2. 미주내 한인 인구 현황

현재의 미국내 한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두가지의 인구 통계가 있는데 하나는 1990년 미국 인구조사 결과이고 또 하나는 2년에 한번씩 발행되는 대한민국 외무부 해외 교포 현황이다. 미국내의 한인 인구에 관해서는 90년도 인구조사가 외무부 통계보다 한인의 수를 훨씬 적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인구조사 당국자체가 한인들 전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특히 현재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은 자신의 불법 체류 여부가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 들이나 상사, 지사원들이 인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무부 해외 교포 현황에 의하면 1993년 1월 1일 현재 총 129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5백만 한인 중 1,533,577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중국 교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들 중 약 29%인 438,953명이 LA가 소재한 남가주지역에 살고 있다. 전년에 대비하여 미주 교포는 5.6%가 증가했으며(미주 중앙일보 1994년 11월 12일), 현재도 매해 평균 18,000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다. 미국 이민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3회계년도 동안 한국에서 이민을 온 한인들의 수는 17,949명으로 지난 20년래 최저를 기록했으나 아직도 한인들의 미국이민은 상당히 활발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미주

중앙일보 1994년 4월 28일)미국내의 한인 인구가 160만명을 넘는 것은 곧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한인의 인구를 약 80만명으로 잡고있는 1990년도 미국 인구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는 한인의 인구는 약 26만명으로 되어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0). 이들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노동 가능 인력이라고 볼수 있는 20에서 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8.5%, 그리고 20대 미만의 소년층이 31%를 차지하는 이상적인 항아리형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5일).

## 3. LA한인 사회

미국내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의 LA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14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LA시와 주변군소 도시를 합친 행정 단위인 LA카운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1994). 1970년 중반 이후 LA시의 한 부분이 정식으로 한인 타운이라고 명명이 되었고 여러 공문서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 등 LA지역에서의 한인들의 영향력은 미주내 다른 한인 사회의 그것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응집된 숫자에 비해서 LA지역의 한인들은 비교적 이민 연조가 짧아 미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들만 어울려서 살고 주위의 다른 인종과의 원활한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LA지역 한인들의 80%가 미국태생이 아니고

성인들 중 60%는 미국에 산지 10년이 안되며 (Schoenberger, 1992), 또한 80% 이상의 한인 가정이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인 사회의 영어 문맹률은 이민자 사회들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1993). LA카운티 자료에 의하면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47.2%로 LA 카운티 평균 30.72% 보다 월등히 높아(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7일)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 주고 있다.

한인들의 수입면에서 있어서도 뜻밖에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9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내 한국인의 1인당 연 소득은 11,177달러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연소득(13,806달러)보다 낮았고 16세 이상 한인들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비율도 아시아계 이민 사회 중에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한인 중 13.7%가 빈곤층에 속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빈곤층은 그 보다 조금 낮은 13%로 나타났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3월 23일). 그러나 이에 반해 LA 카운티내의 한인 빈곤률은 LA 카운티 평균인 14%를 2% 넘는 16%를 기록하고 있어(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7일), LA지역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어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수입 상태는 예상 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지역 한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LA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하여 커나갔다. 현재도 LA한인 타운이 한인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이민 연조가 높아질수록 LA도심을 떠나 인근 외곽으로 이전을 하여 LA한인 타운보다는

소규모의 한인 밀집지역이 인근에 뚜렷이 형성되고 있다. LA한인 타운은 이제 이민을 온 지 얼마 안되는 한인들이 거주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한인타운내 거주 한인은 총 23,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리적으로 한인타운이라고 명명되어있는 지역내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인은 전체 인구의 16.7%만을 차지하고 남미계 이민자가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5월 4일)LA카운티 조사도 LA한인 타운이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1994).

LA한인 사회는 우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한인 타운내 위치하고 있고 많은 교포언론사(2개 일간지, 3개 라디오 방송사, 3개 주요 TV방송사)들이 위치하고 있어 미국 사회보다는 한국 사회와 LA내의 한인 사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성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고 LA한인 타운 상가에 준비한 한국어 간판들과 영어를 몰라도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LA를 대한민국 서울시 나성구라고 부르는 우스개 소리가 결코 농담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한인회, 혹은 그런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 여러 봉사·친목 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나름대로 교민 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일례로 LA카운티 내에만 62개의 한인 공공 기관 및 봉사단체가 있고, 270개 기타 단체(동창회, 협의회 등)가 있다(1993~94 중앙 한인 업소록).

한인 사회내에서의 교회의 위치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데, LA지역의 한인들 중 80%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A지역의 한인 교회의 수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1979년 기록에는 교회의 수가 180개였던 것에

반해 1993~94년도 한인 업소목록에는 무려 600개 이상의 한인 교회가 수록되어 있고,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LA의 나성 영락교회가 들어가는 등, 교인의 증가 속도가 다른 이민사회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인 이민 사회에서의 교회의 위치는 단지 신앙 생활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민 사회에서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되고 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 이후의 친교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라나는 2세대에게는 신앙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 등을 통한 문화/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장소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수와 잠재적인 영향력에 비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 그 이유로는 교회 자체내의 프로그램들이 활발한데 비해 교단 차원의 활동은 정기 합동 예배 정도 외에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개교회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 참여와 사회 지도자적 역할 감당 보다는 신앙의 전파 및 사역을 강조하는 보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한인 교회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Dearman, 1982)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제시한 많은 단체들의 수는 비교적 활발한 대 교민 활동을 말해 줄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교민사회의 관심사와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연도에 따라서, 이민 배경에 따라서, 또한 세대의 차이에 따라서 관심사가 매우 다른데 이러한 다양성은 LA한인 사회의 응집력 부족과 그로 인하여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 부족 혹은 영향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영향력 부족의 결과는 1992년 4.29 LA폭동과 그 이후 복구 과정 동안의 고통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

### III. 4.29 LA 폭동 : 참혹한 상처, 뼈아픈 교훈

#### 1. 발 단

1992년 4월 29일, 수백만의 LA시민들은 TV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란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속도 위반을 한 흑인 운전사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흑인 운전자에게 상식선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한 4명의 LA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 4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한 흑인, 남미계 소수 민족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이는 곧 난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적시에 진압을 못한 난동은 시전역으로 퍼져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무려 7억 8천만달러라는 재산 피해를 입혔고 “LA는 인종 문제로 폭발의 소지가 항상 있는 도시”라는 씻기 힘든 오명으로 인해 입은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하자면 피해 상황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4.29폭동이 난 직후 한국내의 일부 언론은 이 폭동을 “LA흑인 폭동”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시작이 흑인들이었지만 이후 이 폭동은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는 폭동이 되었고, 그동안의 인종 차별 정책으로 팽배한 불만이 폭력을 수반하여 폭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흑인 지역과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많은 한인들이 이 폭동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만을 믿고 서둘러 사업체를 떠났던 한인들은 그 후 수시간만에 성난 폭동들에 의해 불태워지는 자신의 사업체를 TV를 통해 보면서 받을

동동 굴러야 했고, 경찰의 무력함과 주 방위군의 명령체계 혼선으로 인한 출동 지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업소를 자신이 지키기 위해 각자 총을 잡기 시작했으며 전시상황을 방불케하는 총격전이 폭도들과 업주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폭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그동안 수년간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서 한인 사회는 하나로 뭉쳤고 교포 방송들은 이에 부합하여 24시간 교민들에게 총기와 탄약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수일간 지속되었다. 믿었던 치안기관에 실망하여 자신이 터전을 지키고자 총을 잡고 폭도들과 대치하는 한인들의 모습을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연일 방송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폭동은 어느새 한·흑간의 무력 충돌로까지 와전이 되는 등, 폭동의 근원이 미국내의 뿌리깊은 정책적 인종 차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인과 흑인간의 대립에 그 동기가 있는 것처럼 시각을 변형시켜 나가 한인들은 폭동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미국 주류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힘없는 이민족의 고난을 동시에 치뤄야만 했다.

## 2.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

폭동이 진정되면서 피해 조사가 시작 되었는데, 그 결과 한인들 중에서는 2,130가구가 이 폭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사업체 손실, 직장 손실)를 입었고(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a), 한인들의 경제적 손실은 전체 손실액인 7억8천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Ong and Hee, 1993). 통계적으로 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주, 지역 정부측에서는

한인 피해자들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어주질 못했고, 이는 결국 미 주류 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인 사회가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폭동이후 피해 한인들을 돕기위해 LA지역 한인 봉사단체 9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된 한미 봉사단체 연합에서는 2,130여 피해 가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폭동이 난지 8개월이 지난후에도 응답자 1,539가구 중 75%가 재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a). 폭동 이후 15개월이 지난 1993년도 7월에 실시된 제2차 설문 조사에서도 피해자 중 45%가 재기를 하지 못하고 안정된 소득원이 없이 살고 있으며, 사업체 영업을 재기한 55% 중에서도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많은 수가 파산을 고려하거나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 1993년 3월 19일자 LA Times는 한인 피해자중 40%가 LA를 떠날것이라는 한 USC 연구진의 조사결과를 기사화했다. 그러나 한인 봉사단체 연합의 조사결과와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LA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응답자 중 76.1%가 폭동 이전에 살고 있던 곳에 계속 살고 있고, 또한 폭동 이후 이사를 한 23.9%도 LA지역내에서, 혹은 LA 인근으로 이사를 한것으로 나타나 폭동 이후 우려했던 한인들의 “LA탈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 이렇게 복구가 더딘 이유는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의 협조가 불충분 했음에 있다 하겠다. 언어의 불편과 관료주의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한인 피해자 중 15%만이 영어 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a), 정부측에서는 각종 구제 방안에 대한 한국어 안내와 홍보를 통한시하여 영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도움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했던 복구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저리 용자와 연방 재해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주거자금 보조 혜택이 있었는데,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확실성없는 정부 정책과 적절한 홍보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받았어야 할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일례로 용자 건에 있어서는 용자액이 승인이 되었어도 직접 제공 받은 액수는 승인액수의 26.8%밖에 되지를 않아(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재기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그나마 용자 조건이 까다로와 한인 피해자들 중 71%가 같은 지역에서의 영업 재개를 원치않고 피해 사업체를 좀더 전망이 밝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a), 용자당국에서 이 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했다. 또한 연방 재해 관리청의 주거자금 보조혜택도 한인 피해가구 중 93.8%가 신청을 하여 그 중 87.5%가 첫 3개월간 혜택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많은 수가 연장 신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계속 필요로 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 연방재해 관리청에서도 3개월 후 연장 신청에 대한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특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외국어 안내를 통한시하여 이로 인해 현재 몇몇 공익 법률 단체들이 연방 재해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무성의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주정부에서도 폭동 피해자들을 위한 그 어떤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시 정부에서도 폭동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았던 사업 용자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다음 회계년도에 도시 환경미화 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등 폭동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폭동 이전 주류를 판매했던 식료품점이 영업 재개에 대한 주류 판매가 지역 범죄 조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하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 피해자들의 기본 재산권 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4.29폭동은 한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충격을 입혔다. 우선 한인 피해자들 중 30%정도가 폭동 발발 15개월이 지난후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가정의 성인들 중 거의 절반이 수면장애, 부부싸움 증가, 식욕장애, 음주량 증가, 우울증, 소외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약 1/4정도가 우울증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자녀들이 자신들이 겪은 충격을 자기 속에서만 삭히고 있고 밖으로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

### 3. 4.29를 통한 교육

4.29폭동은 한인 사회에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한인 사회의 미래 지표를 반 강제적으로 설정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LA한인 사회가 얼마나 주류사회에서 유

리되어 살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 주었고, 한인 사회의 짧은 이민 연조에 비해 성실, 근면으로 이룩해 놓은 경제적 기반이 전혀 정치/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 준 기회가 된 것이다. 결국은 다원주의 사회내에서 한국 이민 사회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활발한 정치/사회 참여를 통해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만이 이 미국사회에서 한인 사회 - 다른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 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유감스럽게도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 우리 미주, 특히 LA한인들은 값비싼 댓가를 치러야만 했다.

LA한인 사회가 얼마나 주류 사회는 물론 타민족 사회들과의 유대가 없이 살았는 지는 한인타운내의 상가를 봐서도 쉽게 짐작이 된다. 간판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으로는 상점의 종류가 무엇인가도 모르게 되고, 한국 식당에 준비되어 있는 차림포도 한식의 이름을 영어 표기화한 한 채 무슨 요리인지를 설명해 놓지 않아 외국 음식을 시식해 보고자 들어 온 외국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할 때가 상당히 많다. 앞의 자료 처럼 한인들의 영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당연히 비한국인 고객들을 피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상업적인 면 외에도 여러 지역 사회행사, 학교 행사, 이웃간의 행사에도 한국인들은 별로 참여 하지 않는 것이 의례화되어 있어 사회 참여의식이 낮은 민족으로까지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는 미국 사회에서 참여없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 주류사회에 대한 한인 사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결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회 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한인 사회는 상당히 무관심 했었고, 미주내의 정치 상황보다는 한국의 본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계 정치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과 한인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 종류를 들 수 있겠는데, 폭동 이전까지는 한국계 정치인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정치인을 배출할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정치력 행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은 인구 응집력인데 유의영 교수에 의하면 1990년 인구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내 전체 한인 중 32.5%가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반면 필리핀계는 전체의 52%, 월남계는 45.6%, 중국계는 42.8%, 그리고 일본계는 36.9%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 응집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1994년 10월 14일).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도 우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 취득률을 살펴 보면 얼마나 한인 이민들이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관심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5년간의 합법적인 영주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한인들 중 21세 이상으로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에 와서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비율은 전체 한인의 40.1%이고(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7일) 1990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유의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투표권을 가지는 21세 이상의 한인 시민권자의 비율은 전체 한인의 46.3%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사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인데, 참고로 일본인의 75.2%, 필리핀인의 64.2%, 중국인의 56.1%, 그리고 월남인의 49.4%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이다. 이민 연조가 짧을 수록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지 않아 80년 이전 이민자 중 74.2%가 시민권을 취득한 반면 80년 이후 이민

자들 중에는 15.7%만이 시민권을 취득하여(미주 중앙일보 1994년 10월 14일) 이민 연조가 짧을 수록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인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이 된다. 지난 11월 8일 있었던 중간 선거 당시 한미 연합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유권자 중 54%만이 선거에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 즉,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의 비율도 다른 이민 사회에 비해 낮은 데다, 정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은 한인들의 정치 참여도가 얼마나 낮은 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한 연방 상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63.5%의 한인이 영어를 잘 못하고 41.4%의 한인 가정이 “언어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7일)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도 언어 문제로 인해 주류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력 강화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렇게 낮은 선거참여율은 선거구의 유권자들과의 관계가 당락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체제에 있어 한인 사회는 후보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표밭”으로 보이지가 않으며 그러므로 한인 사회를 위한 공약이 나옴이 없고 아울러 한인 사회가 입후보자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한다.

4.29폭동 이후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더 이상 고립되어 살 수는 없다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공화당 소속의 김창준씨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브시의 부시장에 정호영씨가 당선되는 등, 각 주·시정부 요직에 한인들이 등용되었고 뜻있는 정치 지망생들의 출현과 그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인 사회에 일고 있어 앞으로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인들의 대규모 정계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만 너무 연연하여 한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후원하기 보다는 누가 한인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실리적인 면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현재 몰아닥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성향과 반 이민자 정책의 물결에서 한인 사회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가려내고 후원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정치의식까지 갖춰진다면 앞으로의 한인사회는 미국 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균형잡힌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도 될 것이다.

#### IV. 한인 청소년

한인 이민자들을 만나서 이민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한다.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결심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루 16시간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 이민 1세들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한국 부모의 정과 희생정신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미국사회의 한인 청소년들이 과연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성장해 주고 있는 지에 있어서는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 18세 이하가 40,171명으로 LA카운티



내의 한인 인구중 28%를 차지하고 있다(Asian Pacific Islander Data Consortium ACCIS, 1993). 청소년들은 주로 2세와 1.5세로 구분하는데 보통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을 칭하고 1.5세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한인을 의미한다. 많은 한인 2세, 1.5세 청소년들이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이민 사회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사회가 한인 사회이기도 하다. 이 한인 사회 역시 청소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도가 서서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동안의 한인 사회의 성장도에 비해 청소년 사업 시설은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 1. 한인 청소년 비행 실태

다른 인종과 비교하여 한인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아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고 한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도 변변히 나와있는 것이 없지만 한인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가 미국 전역의 평균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것이 한인 청소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 단체들로부터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면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미국내의 청소년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음을 충분히 지적되고 있다. 1992년 통계에 의하면 LA에서만 500여 한인 청소년들이 카운티 교정 당국의 보호 감찰을 받았고, 근래에도 250~300명 정도가 보호 감찰을 받고 있다(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1993). 청소년 비행 문제가 최근에 들어와 더 많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자료는 없으나 그동안 필자가 소속된 KYCC의 3년간 상담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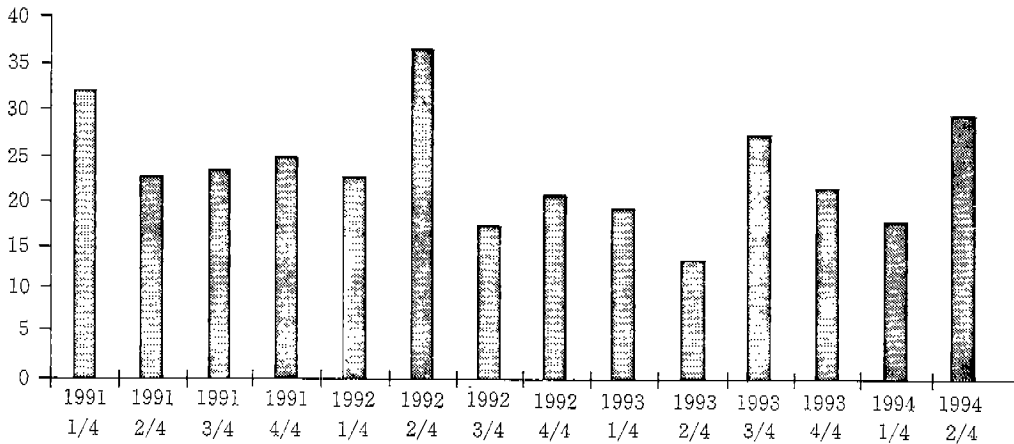
통계를 대 3개월마다 비교해 보면 특별히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전체 상담건 중 청소년 불법 행위(마약·술·가출, 갇단 활동, 절도 등)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로 25% 미만이지만 1년에 한번정도 30% 선으로 급증을 했다가 다시 25% 미만선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표 1 참조).

청소년 비행 문제의 건수에 있어서는 특별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비행의 정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반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심각해 지고 있어 한인 사회도 청소년 비행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자동차 절도나 빈집 털이 등이 청소년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난 1년새에 들어서 한인 청소년이 연루된 무장강도, 폭력 상해,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다. 범행 청소년들의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통념적으로 환경이 안좋은 집안 출신의 학생이나 성적에 좋지않은 학생들이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 부유가정과 유명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상당히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교포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지난 1993년 연말에 발생한 중국계 고등학생 스튜어드 테이군 살해 사건에는 1명의 중국계 학생과 3명의 한국계 학생이 살인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인 사회에서는 1류로 알려진 모 고등학교 학생들로 그 중에는 우등생까지 끼어 있어 한인 사회내의 청소년 범죄는 단순 충동에 의한 것이나 유흥비 마련의 차원을 넘어선 더 깊은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갱 문제인데, 한인 사회에도 이

〈표1〉

청소년 불법행위 상담사례비율 : 1991년 1월~1994년 6월



갱 문제가 점차적으로 퍼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비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갱이란 두명 이상이 모여 범죄나 비행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조직을 칭한다. 그러므로 갱이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단순 불량 집단에서부터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 범죄 집단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인 사회의 청소년 갱은 단순 불량·범죄 집단에 더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직까지는 조직 범죄화되지 않았고, 갱단이 결성된 목적도 처음부터 범죄 모의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한인 갱단은 눈에 띄게 다양해 지고 있다. 한동안 한인 청소년 갱단의 두목급들이 체포되어 별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지역별로 조직정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위의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청소년 선도단체인 젊음의 집 대표인 김기웅 목사에 의하면 청소년 갱단들은 단원들의 수로 가늠지어지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협과 구타를 통해 급우들을 단원으로 확보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 한인 청소년 갱단의 수나 단원의 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한인 갱단의 성격은 조직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 중심의 청소년 갱단과 영어권의 2세 중심의 청소년 갱단이 있다. 2세 중심의 청소년 갱단 중에는 1세 중심의 갱단에서 강조하는 한국식의 엄격한 선·후배 관계등에 반발하여 조직된 것이 있을 정도로 세대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세 중심의 갱단 중에서는 한국인들 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일 민족 민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다민족 조직으로 나뉘어져 문화적 조직과 배경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갱단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모두 공부를 못하고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나왔다는 통념은 사라진 지 오래로, 새칭 일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상위권 학생, 그리고 유복한 가정 출신 학생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갱단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살펴 보면 많은 한인 청소년들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타 인종 청소년들의 행패나 무시에 대항하기 위한 자구책으로나 그 어떤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에 대한 반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갱 문제를 담당하는 LA 경찰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체포된 한인 갱단원들에게 가입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인 청소년 갱단원이 다른 갱단원에 비해 훨씬 선도하기가 쉬운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인 청소년들의 비행의 이유에는 사회 환경 및 심리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민 사회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몇가지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 2. 2개 문화 사이에서의 정체성 확립 문제

한인 이민자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민중 하나는 가정의 한국식 문화와 외부의 미국식 문화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LA한인들의 이민 연조가 비교적 짧은 것과 대다수의 한인 1세 이민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한인 가정은 아직도 거의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러한 추측은 학계의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이민 가정의 부모들은 계속해서 한국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1989).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던 한인 2세 혹은 1.5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가정에서 겪었던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국 문화 및 가치관을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혼란이 오게 되어

이로인한 갈등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Golden, 1987).

하루를 반으로 나뉘어서 집에서는 한국인/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야 하고 밖에서는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것에 예민한 사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종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단체 중심적인 가정생활에 비해 학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발표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어 가치관 조차도 가정과 사회간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어쩌면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 어떤 소속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설부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실제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14 ~ 21세 사이의 한인 남녀 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0%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미국에 이민 온 지 5년에서 10년 사이의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심한것으로 나타났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월 1일). 자아에 대한 혼란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에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겹치게 되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게 되고 부모와 사회 모두에 반감을 느끼는 때가 많다. 이럴때 탈선에 빠지게 되기가 쉬운데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비행이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1990). 어쩌면 이러한 비행은 자신이 도대체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를 모르는 혼란의 책임을 부모와 사회에 돌리려는 시도인지도 모른다. 소속의식을 찾아가는 와중에서 학생들은 갱단을 조직하거나 갱단에 가입을 하게 된다. 소속원에 대한 의리를 바탕으로

로 이루어진다는 갱 사회의 성격때문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밖에서는 못 느껴보던 진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그 단체를 이탈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혼란을 잠시나마 피하고자 마약이나 술, 담배에 빠져드는 학생들도 많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3. 부모와의 대화 부재

이민 사회, 특히 이민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라만 매우 바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모는 직장 혹은 사업을 위해서 식사시간과 취침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자녀들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랴 뒤떨어지는 공부를 따라가랴 서로 바빠 대화의 시간이 그리나지를 않는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민 사회에서는 게다가 대화를 하려 해도 할 시간이 없음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설령 부모의 휴식시간을 찾아 집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사업·직장에서의 휴식일 뿐 그 동안 미루어왔던 가사일에 휴식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여유가 없다 보니 만성적인 피곤이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와의 진지한 대화보다는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짜증이 앞선 책망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자녀들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몇번 겪게 되면 더 이상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588명의 미주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중 절반 정도가 자녀들과 주중 하루에 1시간 이내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1일).

〈표2〉 월-금요일 사이 하루 중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

| 자녀와의 대화 시간 | 응답자 비율(%) |
|------------|-----------|
| 전혀 없음      | 1         |
| 30분        | 20        |
| 30분 - 1시간  | 29        |
| 1 - 2시간    | 22        |
| 2 - 3시간    | 11        |
| 3시간 이상     | 17        |

이 대화의 부재는 한국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더 선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미주지역 국민학생 4, 5, 6학년 한인 학생 959명과 서울의 동급 학생 1,08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들 중 40%가 주중에 어머니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보내고 있는 반면 미주 한인 아동들 중에서는 20%가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분 이내의 시간을 보내는 한국 아동은 전체의 3%인데 반해 미주 한인 아동들 중에는 7.2%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1일).

2세 자녀와의 대화 부재는 시간 부족과 함께 언어의 차이에도 그 문제가 있다. 이민을 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1세들의 주 언어는 한국어이고 제한된 영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2세들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게 되니 일상적인 대화는 통할 수 있어도 허심탄회하게 자녀가 자신의 고민이나 계획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지지를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미주지역 한인 학부모 588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언어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 불편과 가치관의 차이를 걱정을 한 응답자

가 전체의 30%로(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1일)한인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 언어에 상관없이 생기는 대화의 부재는 “대화”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될 때가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대화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것으로 해석을 하여 부모, 교사, 동료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심는데 이용하고자 원하는데 반해 부모들은 대화를 “일방적인 훈계” 혹은 부모의 바램을 자녀에게 고취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어 모처럼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가도 답답함을 더하고 반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한인 청소년 단체들이 부모 교실을 열어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강좌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듣는 기술”과 “너”화법을 피하고 “나”화법을 이용할 것(I message vs. You message, 즉 대화의 시작에 있어서 “너는 매사,” “도대체 너는…” 등의 상대방을 몰아 붙이는 화법을 피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이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걸…” 등 자신의 의견도 말하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진지하게 유도하는 화법으로 You message가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복선이 있는 반면 I message는 덜 감정적이고 상대 존중적인 느낌을 준다.)을 강조하고 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자녀와 대화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으로 해 줄 때가 많다. 단순한 용돈이나 간단한 선물, 혹은 외식의 기회 뿐만 아니라 과다한 액수의 용돈, 신형 자동차 등을 선물로 주어 자녀들의 감성적 공백을 물질로 대신 해 주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자녀를 위하여 마음에서 많은 것을 해 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결국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너무 물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1세대들은 2세대들이 너무 부모 의존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답이 먼저인지 달같이 먼저인지의 논쟁을 생각하게 된다.

#### 4. 높은 교육열, 감당하기 힘든 기대

위의 제목을 보자면 한국에서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이제 세계 여러나라에 알려져 있고, 교육을 향한 집념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게 된 주된 이유인 것도 사실이다. 미국 내의 한인 사회에서도 높은 교육열은 예외가 아닌데 일례로 1993 ~ 1994년도 중앙 한인업소록에 의하면 LA지역의 대학입시 준비학원 등과 같은 과외 학원이 211개소가 있으며 학부모들 중 50%가 자녀의 최종 학력에 박사 학위를, 28%가 석사 학위를, 그리고 16%가 학사학위를 희망하고 있어(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1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많은 1.5세 2세 한인 청소년들이 각 학교와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은 실로 자랑할 만한 일이고 150만 교포가 모두 가슴 뿌듯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거들 속에서 비현실적인 기대에 눌리어 탈선을 하거나 탈선의 위협에 처해 있는 청소년도 많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의 주요 일간지들은 교육면을 통해서 미주 각지의 한인 학생들 중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기사를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 중에는 한 도시의 국민학교 학생회장이 된 한인 학생의 이야기부터 수석으로 대학을 졸

업한 학생의 이야기까지 비교적 자세히 실리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희소식을 미주 한인 모두가 나눈다는 면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지만 이러한 기사를 접하는 다른 부모들의 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타당한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를 하여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의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회장이 된 한인, 우등을 한 한인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려서 이주를 한 학생들로 우선 공부에 가장 큰 관문인 언어습득에 별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런 학생들이 기사를 이용하여 부모들은 이민을 온 지 얼마 안되어 영어습득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학생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여 신문에도 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는가”라는 압박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압박감과 함께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시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죄책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5. 단발성 관심 = 무관심

한인 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LA지역에 위치한 60개의 한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 그리고 270여개의 일반 사회 단체 중 청소년 주력 단체는 단 두 단체라는 점에서도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모범 소수 민족이라고 통칭되는 아시안계 이민자들 중 하나인 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우선 한인 사회와 부모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관심 내지는 현

실 부정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사회는 모범 소수 민족계 중에 하나이므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한인 사회 일반의 안이한 태도와 아무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처에 탈선의 유혹이 만재해 있어도 “남들은 다 그래도 설마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비현실적인 신뢰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다른 고민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으로 인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도 놓치고 지나가는 때가 비일비재하다. 미주 지역 588명의 한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모두 다 이야기 하거나,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1월 1일).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은 좋은 일이지만 흥미롭게도 학생들 사이에서 고민의 토로 대상 중 부모가 상위권에 들어있지 않음은 주지를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청소년 관계자들이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인 청소년들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부모에게 가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이유에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대화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는다고 믿는 반면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한인 부모들의 높은 신뢰도는 일방적인 신뢰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인 청소년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각계 각 층의 인사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한인 사회 차원에서 잠깐이나마 높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 교육 및 선도에 도움이 되지를 앓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과감한 사회투자와 교육만이 장기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에 예방 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사건이 발생한 후 사전에 반응하여 생기게 되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발상이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LA지역 한인 청소년 사업

위에서 지적한대로 LA지역 및 미주 전역의 한인 사회의 청소년 사업은 그동안의 발전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한인 사회의 낮은 관심도로 인한 후원의 부족,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 보조의 급감들이 현존하는 청소년 단체들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각 단체는 기존 사업 수행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 개발책 *Economic Development*마저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1. KYCC(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KYCC는 다민족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인 커뮤니티와 타민족과의 이해 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보다 나은 LA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사업 목표 아래 설립된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1975년 설립 이후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LA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KYCC프로그램 제공 대상은 저소득층과 이민 온 지 얼마 안되는 한인 청소년들, 그리고 그 가정으

로서 그들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이민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재미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자아관을 확립하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도우며 이색 문화의 소외감 속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는 60명의 직원이 3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예산이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내의 한인 봉사 단체 중 명실공히 가장 큰 단체로 발돋움했다.

#### 1) 역사

1975년 아시아 아메리칸 마약 방지 기구(Asian American Drug Abuse Prevention)의 한 프로젝트로 한인청소년회관(KYC:Korean Youth Center)이란 명칭 아래 청소년 마약 방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77년에는 LA카운티와 시당국,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KYC자문사회가 구성되었다.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개인, 가족, 단체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범죄예방, 직업알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비영리 단체로 정식 발족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988년에는 한인 단체중에는 처음으로 미국 최대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직업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후, KYC의 연예산이 백만 불을 넘게 되고, 다목적 봉사 단체로서 면모를 갖추어감과 동시에 오랜 숙원 사업인 저소득층 아파트와 커뮤니티 회의실을 포함한 자체 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의 확장에 따라 청소년

년선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회관으로 기존의 한인 청소년회관(KYC)명칭을 KYCC로 변경하는 제3의 도약을 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에 지상 4층의 지하2층의 자체 사무실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속에 19호의 저소득층 아파트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회의실을 마련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 KYCC청소년 프로그램

### (1) 상담부

한인 청소년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 상담을 실시하며, 청소년 대화모임과 학부모 대화 모임을 통하여 그들이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워크샵과 교육도 실시한다.

### (2) 교육부

국민학생, 중학생 대상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을 위한 SAT(대학 진학 시험)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 모임, 부모님 대상 워크샵, 그리고 관련 정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매해 여름에는 청소년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

### (3) 금연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워크샵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동, 미술, 연극, 비디오 촬영, 사진클럽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흡연의 위험을 한인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등지에서 각종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 (4) 청소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며 이와 더불어 지도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5) 청소년 사업 경영 실습 프로그램

LA시외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 청소년과 흑인, 그리고 남미계 청소년들이 나서 지우기 사업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시하면서 청소년들 간의 민족간 이해를 증진 시키면서 장부 정리와 마케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6) 직업 훈련 알선 프로그램

LA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 알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장내 다니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훈련 프로그램과 영어, 컴퓨터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 (7) 지원 재활용 프로그램

빈병이나 강통, 종이류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인 타운의 식당이나 술집 등으로 부터 협조를 받고 있으며 14에서 55세까지의 한인, 혹은, 남미계 등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8) 한인타운 녹화 사업

한인타운 인근에 나무를 심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최근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연내 한인타운 지역에 2,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한인 타운 인근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나무를 심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 (9) 특별 프로그램

기존 KYCC부서가 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을 담당하는데 청와대 초청 LA지역 흑인 학생 연수단 행정 실무 처리, 4.29폭동 장학금 실무 처리, 번역, 한인사회/청소년 관계 통계 수치 수집 및 분석, 대 커뮤니티 관계 사업, 아시아계 커뮤니티간의 전산망 구축 사업 등을 담당한다.

## 2. 젊음의 집(Green Pastures Youth House)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단체로 LA카운티 소년원에서 수년간 수감 청소년 선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해온 김 기웅목사가 1993년 설립했다. 문제 학생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을 LA카운티 교육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시키고 학생들을 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1) 젊음의 집 프로그램

#### (1) 젊음의 학교

LA 카운티 교도국과 LA카운티 교육국의 지원을 받아 14 ~ 18세의 청소년 중 범법행위로 인해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과과목 강의를 한다. 일선 교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학과 교육 외에도 상담과 대화를 통한 생활상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2) 청소년 미래개발 센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돕고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합숙 공동 활동이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을 모아 한달간 공동 합숙 훈련 생활을 통해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등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3) 소년원 선교

소년원 수감생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때까지의 신앙생활 안내, 신앙문제 상담과 협력, 기타 활동으로 청소년 수감자들의 신앙과 인격 성장, 그리고 정서 안정에 필요한 일들을 제공한다.

## 3. 대학생 과외 지도 프로그램(Korean Tutorial Project)

남가주 지역의 한인 대학생들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으로 1978년 UCLA한인 학생회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인 타운 지역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인 학생들 중 갓 이민온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숙제 및 시험공부 도움이 주 목적이지만 이 외에도 주말에는 소풍, 체육활동, 현장 학습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며 이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의 형, 누나로서 이민 생활적응을 돕고 있다.

## 4. 한인 청소년 후원회(Korean American Youth Foundation)

한미 청소년 후원회는 교포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 창설되었다. 2세 청소년들이 캠프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관을 배우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공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LA 인근 산정에 10에이커 가량의 대지를 매입, 캠프장 운영을 겸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여름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에게도 캠프장을 제공하고 있다. 순수 한인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후원회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청소년 사업의 자립화를 위한 좋은 보기를 보여주는 곳이라 하겠다.

## 5. 교회 청소년 사업

한인 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 단체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한인들 중 70~80%가 교회에 다닌다는 조사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한인 교회들이 LA지역과 그 인근에 약 600여개가 있다는 것은 한인사회에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신앙 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화의 장소와 건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여 결국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데 수훈을 세우고 있다. 주로 일요일의 활동에서 벗어나서 주말 성경공부와 친교의 자리, 주중활동,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방학때 있는 수양회(캠프)활동 등이 주요활동들이다.

교회를 통한 청소년 사업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활발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종교단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 아직도 한인 교회는 1세 중심이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만한 1.5세/2세 교계지도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2세 한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원에 진학, 교역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인적 자원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 교회별로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단차원의 연합사업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부진한 편이다.

## VI. 한인 유학생

1994년 미국 유학생이었던 박한상군의 존속 살인 사건과 그 외의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각 언론사들은 유학생들의 생활상 중에서 부정적인 면에 많은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학생 = 부유층 도피자 등등의 성급한 공식이 사회 일각에 나타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세계 각국의 속담 중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내를 흐른다”는 성격의 속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어떤 한 단체에 대한 실상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묘사한 실상이 그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고, 여기서는 유학생들, 특히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탈선의 소지,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 문물을 직접 접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유망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해외 유학을 장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해당 국가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이 없이 유학 생활을 시작할 경우 적응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처음의 동기와는 상관없이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유학생생활 보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주한인사회와 본국사회간의 입체적인 협조 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 1. 한인 유학생 분포

외무부 해외 교포 현황에 의하면 남가주내의 합법적 체류자 중 유학생은 3,522명으로 나타났다(미주 중앙일보 1994년 9월 12일).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계열의 재학생 중 1993년 12월 현재 한국 유학생은 모두 370명으로 그 중에서 학부 221명 그리고 대학원에는 149명이 재학하고 있고, 453명이 LA지역의 9개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대학으로 과정 이수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가능)에 진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104개국 유학생 중 최대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3월 1일).

## 2. “낙하산 아이들”

낙하산 아이들 *Parachute Kids*이란 미성년 부모의 감독없이, 혹은 형식적인 법적 보호자 아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미성년 유학생으로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연상케 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이름이 처음 쓰인 것은 대만 출신의 미성년 조기 유학생(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칭하면서 인데, 이런 미성년 조기 유학생 문제가 많아지면서 미국내의 대만출신 이민자 사회에서는 대만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고, 대만 정부에서도 교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들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사회내에 낙하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며, 외무부 통계에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LA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대화를 해보면 각 학교마다 미성년 조기유학생들이 꽤 있는것으로 밝혀져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다면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유학을 오는 방법으로는 국가 시험을 치고 학교측의 사전 입학 허가를 받아서 오는 합법적인 경우와 우선 방문 비자 등을 받아서 미국으로 온 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라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용, 학교에 진학한 후 방문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꾸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학, 혹은 대학원 유학생들에 비해서 조기 유학생들은 현지 적응면에 있어서 더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탈선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감성이 민감한 사춘기 때에 갑작스러운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고, 미국내 고등학교들의 공·사립을 막론하고 환경이 계속해서 위험해 지고 있는 외종에서 부모나 합당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로나 그 가족으로나 상당한 위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3. 교포 사회와 유학생

유학 지망생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한인 사회가 인근에 있는 곳이 편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포사회와 인접한 학교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로 인해 아무래도 LA나 뉴욕 등지에 유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교포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할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포사회 중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는 역시 교회들이다. 각 교회의 학생부,

대학, 청년부서 등을 통하여 유학생들이 처음와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의 여러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유학생들도 교회를 통하여 신앙적인 안정을 찾는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서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종교단체라는 점에 있어서 봉사의 영역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포사회 전반에 유학생을 위한 단체는 있지 않으며 청소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봉사 단체들도 유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데는 미진한 편이다.

한국내에서의 유학생 관련 사건 발생 이후 교포 사회에서도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유학생들의 과소비, 혹은 사치 생활과 탈선 행동들이었다. 즉, 유학생들 중 많은 수가 부유층 출신으로 도파성 유학을 왔고 학교에 적을 두지도 않으면서 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관념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유학생들의 소비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유학생 경비지급 현황에 의하면 1994년 1월에서 8월까지 유학경비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외화가 7억5천만 달러로 전년에 대비하여 41.5%가 증가했고 이 중 LA지역 한국 유학생에게 송금된 액수는 약 2천3백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0월 19일). LA 인근에 유학생의 수를 3,000여명으로 추산하여 계산을 하면 그 기간동안의 유학생 한사람 당 유학경비는 약 7천여 달러가 된다는 것인데 학비와 최소 생활비를 감안 한다면 이 액수는 결코 많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물론 은행 송금 기록만을 가지고 유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살펴 본다면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을 것이

다. 유학생들의 소비가 불경기로 시달리는 LA 한인 사회에 경제적인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인 사회의 자동차 판매업소와 유흥업소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으며, 유학생들의 자동차 구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카페나 디스크텍 등의 유흥업소도 고정 손님의 20 ~ 40%가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미주 한국일보 1994년 10월 19일).

LA 지역에서 만큼은 유학생들의 탈선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왔다가도 끝내 적응에 실패한 유학생들도 종종 접하게 된다. 적법 절차를 밟았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LA 지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학교 공부에 실패하고 생활경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소로 진출하거나, 단순히 용돈 벌이를 위해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유학생들의 어두운 면이라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액을 지불하고 지명도가 없는 학교에 이름을 올린 뒤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LA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탈선 유학생들은 주로 부유층 자녀들로 알려져 있는데 유학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학업에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 한인 사회에 지배적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보다는 유흥업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학생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한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쉽고 이로 인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학생들의 탈선 만을 지적만 하기보다는 이에 대해 교포사회는 무엇을 했는가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도움의 책임을 이민 사회가 져야 한다

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지만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포 단체도 없으며(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미비한 상태에서 유학생을 위한 사업까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지만), 유학 업소들을 비롯한 많은 업소가 유학생 계층이라는 고객 시장을 활발히 공략했으며, 유학생 출신의 접대부들이 있음을 공공연히 자랑하는 일부 유학업소들의 음성 광고는 일부 유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교포사회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 대 책

유학생을 위한 대책은 이곳의 교포 사회와 한국 사회간의 입체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한국 정부 차원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성의 차원에서 유학생 승인 및 선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유학의 자유화가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글리 코리아”의 하나로 분류되는 탈선 유학생 한명의 실수로 인하여 열심히 생활하는 한인 유학생들과 한국, 그리고 미주내 한인 사회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 지망생들을 위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하며, 한인 사회의 교육자나 청소년 관계자들을 통해서 외국의 실정을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조기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이곳에 같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조기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법적 대리 사업 및 본국의 부모와의 연락업무를 취하는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현지의 청소년 단체에 유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것과 현지 청소년 단체 및 본국의 청소년 유관기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VII. 결 론

미주 한인 사회는 100년이 채 안되는 짧은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다원주의, 다인종 사회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서 4.29폭동은 미주내 한인 사회가 더 이상 하나의 고립된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류사회에 대해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정치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겨 주었다. 미주내 한인 청소년들은 다방면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에 반해서 적응에 실패하고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일부 유학생들의 사치 생활과 탈선에 대해서는 유학생들만을 일방적으로 질책하기에 앞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 및 환경적 요소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곳 교포사회와 본국의 활발하고 입체적인 공조 아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과감한 투입을 통해 교포 청소년, 유학생의 구분에 관계 없이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일군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머지 않은 장래에 미주 교포사회의 미국내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의 국제화 준비 및 국제 경쟁력강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Asian/Pacific Islander Data Consortium  
ACCIS. San Francisco:Asian Pacific Is-  
lander Data Consortium, 1993.
- Chae, K. "Korean-American Juvenile  
Delinquency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  
dren." Dis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  
gy, 1990.
- Dearman, Marion. "Structure and Function of  
Religion in the Los Angeles Korean  
Community:Some Aspects." Korean in  
Los Angeles. Los Angeles: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California State U., Los Angeles, 1982.
- Golden, J. "Acculturation, Biculturalism and  
Marginality:A Study of Korean-Ameri-  
can High School Students." Diss. U. of  
Colorado. Bolder, 1987.
- Korea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KAIAC Press Packet, March 8, 1993."  
Los Angeles: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a.
- 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KAIAC Press Packet, July 22, 1993."  
Los Angeles:Korean American  
Interagency Council, 1993b.
-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Annual  
Report. Los Angeles: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1993.
- Lee, S.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Acculturation:A Study of Ethnic Per-  
sistence." Diss. The State U. of New Jer-  
sey, New Brunswick, 1989.
- Los Angeles 1994:State of the County Report,  
Los Angeles: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 Ong, Paul and Suzanne Hee. "Losses in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April 29 -  
May 1, 1992." Los Angeles:Center for  
Pacific Rim Studies, U.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3.
- Schoenberger, Karl, "Bridging the Gap Be-  
tween the Two Worlds." Los Angeles  
Times 12 July 1992:A1+.
- U.S. Bureau of the Census. U.S.Census of Pop-  
ulation. Washington:U.S.Bureau of the  
Census, 1990.
- Yu, Eui-Young, Earl H. Philips & Eun Sik  
Yang, ed. Koreans in Los Angeles. Los  
Ageles: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California State U.,  
Los Angeles, 1982.
- 1993~94 중앙 한인 업소록. Los Angeles:The  
Korean Central Daily, 1993.

〈Abstract〉

## Transformation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ies and Korean American Youth Problems.

Justin Young J. Won

Less than 100-year-old Korean American immigrant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has keveloped quite rapidly and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visible ethnic communities in this multi-ethnic nation.

Howeve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had tendency to isolate itself from the kmainstream society, and it learned a very valuable lesson through the 1992 LA Riots in Which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A was totally tgnored by the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even though the Korean American merchants comprised the single largest group vicimized by the looting and fire bombing.

Through lthis ordeal,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realized that its self-imposed isolation caused absence of kits power and influence over the mainstream. This painful experience se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rom insulation to active

participation for its own right.

Korean American youth, along with other immigrant youth with different ethnic origin, faces tremendous amount of stress caused by lack of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cultural identity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kwho in turn add more pressure to their children by imposing unrealistic future expectations. Korean youth delinquency should not be overlooked by the community, but the community hase't paid close attention to the problem.

Furthermor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kis not equipped to support students from Korea.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ll as the Republic of Korea must invest its resources more to the youth service sector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ies throughout the US to assure that its next generation will become competent leaders of coming pacific era.